



VALUE INVEST KOREA

2018년 01월 마지막주



가드넥



아스타



비피유홀딩스



딜라이트



VENTURE STORY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기술 이전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기술 이전

- 관련기술 : KIST 연료전지연구센터 강화복합전해질막 제조기술
- 기술료 : 2억
- 효과 : 고가의 복잡한 공정이 필요하던 기존 기술과 달리 나노소재층의 필름구조제어를 단순하면서도 정교하게 조절 가능
- 내구성 개선을 위한 첨가제 연구 공동수행 진행중
- 2차 기술이전 예상



종속회사 노스퀘스트, 에스엘에스바이오 주식 취득 결정

■ 아스타 종속회사, 에스엘에스바이오 주식 58만주 취득 결정

- 아스타의 종속회사 노스퀘스트가 신약개발 관련 신기술의 개발·지원사업 등을 영위하는 에스엘에스바이오 주식 58만주를 49억3000만원에 무상 취득(증여)키로 결정했다고 공시
- 취득 후 지분율은 9.98%
- 취득 목적은 질병진단사업 관련 기술자문과 연구개발 등 협력관계 강화다.



감성지능 똑똑한 앱 ‘aiMei’-‘Neil’ 주목

■ 감성지능 똑똑한 앱 ‘aiMei’-‘Neil’ 주목

- 비피유홀딩스는 통합 SNS감성검색엔진 ‘짐고’로 업계의 큰 주목을 받으며 현재 서울 본사 외 미국 및 보스니아에 각 지사를 두고 글로벌 시장을 공략
- 감성지능 기술과 기존 짐고의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최근 감성지능 애플리케이션 ‘aiMei’와 ‘Neil’을 출시
- aiMei와 Neil은 ‘AEI’(감성 기반의 인공지능) 엔진과 자체 개발한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용자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익한 솔루션을 제시
- aiMei는 내가 평가한 나의 성격, 그리고 심리 상태와 친구가 평가한 나에 대한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여 각 사용자에게 필요한 성격 개선 솔루션을 제공
- Neil은 세계 최초의 AEI 뉴스리더이며 동시에 개인 큐레이터 역할을 하는 AI
 - 현재 영어 서비스만 출시하였으나 한국어 서비스도 출시
- 미국 특허청에 기술특허 출원 신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술 관련 혁신적인 평가를 받아 업계 및 학계에서도 주목
- 미국 특허청에서 인정한 비피유홀딩스의 감성지능은 무려 8가지 기술항목에 포함
 - ‘인공지능과 머신러닝(기계학습)’, ‘시스템 차별성’, ‘시스템 보안’, ‘시스템 속도’, ‘감성지능을 인공지능에 포함하는 내용’, ‘언어이해 및 인식의 차별성’ 등



딜라이트 명절 프로모션 진행

■ 딜라이트 프로모션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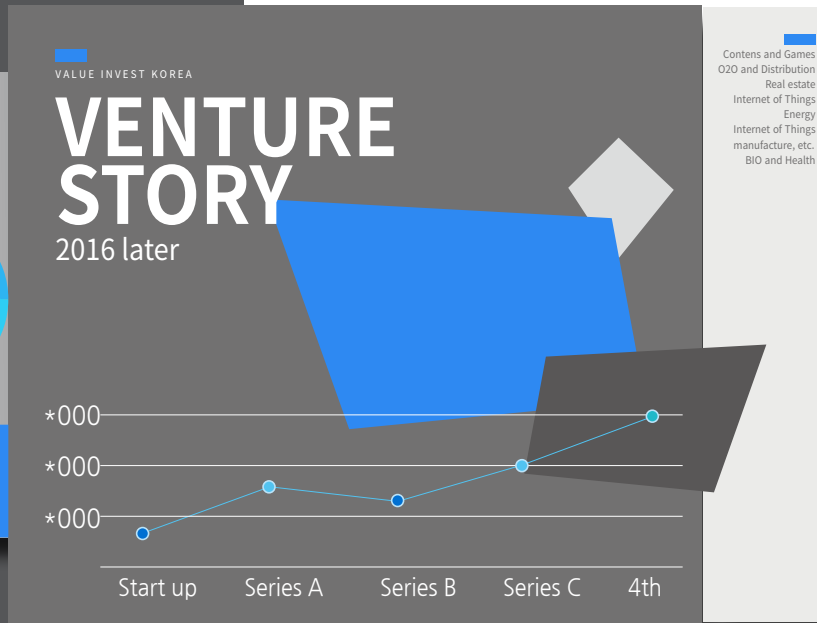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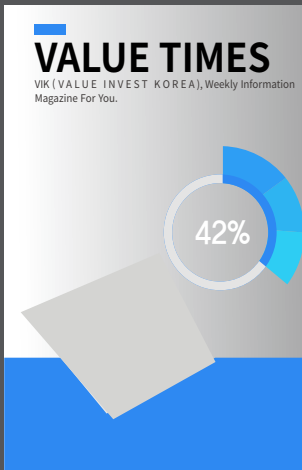
- 대한민국 중소기업 혁신대상 기술혁신부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수상
- 타사 같은 성능 제품 대비 최대 70%이상 저렴, 보청기 지원금 적용시 무료구입 가능

■ 난청 증상 예방법 TIP “보청기 구입 시 가격·회사만 따져선 안 돼”

- 여타 다른 신체기관과는 달리, 한번 손상된 청력 세포는 회복되기가 매우 어려움
- 평소 청각세포가 최대한 덜 손상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노인성 또는 소음성 난청 예방법
 - ① 60/60법칙 지키기 =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위원회는 ‘음악 들을 때 최대 음량의 60%로 하루 60분 정도만 듣는’ 60/60법칙을 지키라고 권고
 - ② 이어폰 사용 자제 = 이어폰 사용은 최대한 자제하고, 한 시간 사용하다면 5분 정도는 귀를 쉬어야 함
 - ③ 술, 담배, 스트레스 피하기 = 귓속 달팽이관을 비롯한 청각 기관에는 미세한 혈관이 뿔뿔하게 차 있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난청이 발생
 - ④ 만성 질환 관리하기 = 만성 질환은 미세혈류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 미국당뇨병협회는 당뇨병 환자가 당뇨병 없는 사람보다 청력 상실 위험이 2배 더 높다고 발표
 - ⑤ 정기적인 청력검사 받기 = 연령이 높아질수록 귀의 퇴행도 가속화돼 특별한 이유 없이 청력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으로 정기적인 검사 필요

VALUE INVEST KOREA VENTURE STORY

제28회 2018.01.31



- 정보 홍수 시대,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 '큐레이션'이 뜬다
- 작년 벤처투자 사상 최대 2조4천억원... '제2의 벤처붐' 오나



큐레이션

curation

추천이라는 뜻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콘텐츠를 개별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콘텐츠가 많아질수록 선별된 양질의 정보에 대한 수요가 느는데 큐레이션은 이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신규 비즈니스로 급부상하고 있다.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자기만의 스타일로 조합해내는 파워 블로거,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거대한 집단지성을 형성한 위키피디아, 스마트폰을 통해 주제에 따라 유용한 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등이 큐레이션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큐레이션

정보 홍수 시대,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

-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츠 공급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이용자를 사로잡기 위한 ‘큐레이션’ 서비스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급부상
 - 콘텐츠 수백만개가 쏟아지는 정보 홍수 시대에 정교한 큐레이션 서비스는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업체 넷플릭스는 개인 맞춤형 콘텐츠 제공 서비스인 큐레이션에 일찌감치 주목
 - 지난 2007년부터 기술적 기반인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발전에 주력한 넷플릭스는 이용자가 시청한 모든 기록을 랭킹 알고리즘, 클러스터링 기법 등 시스템을 통해 분석, 보다 개인의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추천
- 네이버도 뉴스 서비스에 큐레이션을 적용한 에어스(AiRS)를 지난해 모바일 메일 뉴스화면에 제공
 - 에어스는 AI 추천(Recommender) 시스템의 줄임말로 네이버가 자체 연구·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뉴스 추천 시스템
- 카카오M으로 사명변경을 예고한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음악 애플리케이션(앱) ‘멜론’도 큐레이션 중요성을 사업 초기부터 주목, 개인 맞춤형 음악 콘텐츠 서비스로 진화
 - 멜론 유료가입자는 지난해에만 약 60만명 늘었다. 음원 시장 점유율도 55%로 1위다. 로엔이 카카오의 알짜 자회사가 된 비결이 콘텐츠 추천 능력, 큐레이션에 있는 셈
- 토종 SNS의 원조인 싸이월드도 뉴스 플랫폼 사업자로 변신 중. 싸이월드는 올해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큐레이션이 적용된 뉴스 추천 서비스를 개발
 - 특히 싸이월드가 삼성벤처투자를 받으면서 이같은 맞춤형 뉴스 서비스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탑재될 수도 있다는 분석



모태펀드

투자자가 불특정 개인이나 기업(단체)이 아닌 일반펀드로 구성된 펀드를 말한다.

펀드가 가입하는 펀드(fund of funds)인 셈으로 `재간접펀드'라고도 한다.

재간접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직접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에 재투자를 하는 펀드로, 여러 펀드에 분산투자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추구한다. 분산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 위험(리스크)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재간접펀드의 가장 큰 장점이다.

제2의 벤처붐?

작년 벤처투자 사상 최대 2조4천억원

- 지난해 벤처투자액이 2조4천억원으로 5년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달성
→ 신규벤처펀드 조성액도 처음으로 4조원을 뛰어넘는 등 ‘제2의 벤처 붐’ 움직임
- 벤처투자액은 2013년 이후 5년 연속 증가세
-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17년 벤처펀드 조성 및 벤처투자 동향’을 29일 발표
- 투자받은 기업 수는 1천266개사로 6.3%(75개사) 증가했으며 평균 투자금액은 18억8천만원
- 창업 후 3년 이내의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액은 7천796억원(32.7%)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으며 창업 3~7년 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은 6천641억원(28.0%)으로 7.9% 증가
- 유통·서비스(도소매, 전문서비스)와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소프트웨어, 정보서비스)가 전년 대비 각각 67.9%(1천693억원)와 27.0%(1천97억원) 늘어나 증가 폭이 가장 컸음
- 정부의 모태펀드 추가 출자로 지난해 신규벤처펀드 조성액도 사상 최초로 4조원을 돌파
- 지난해 신규벤처펀드 조성액은 전년보다 28.3% 증가한 4조4천430억원으로 집계. 펀드 결성 조합 수도 이 기간 36.7% 증가한 164개
- 지난해 해산한 51개 벤처조합이 투자자산을 매각해 거둬들인 금액은 1조2천932억원으로 투자액(1조1천88억원) 대비 해산한 벤처조합의 수익률은 3.43%로 전년(1.07%)보다 2.36% 포인트 증가